

동일 반복재해 근절 등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 개최

- 동일 반복재해 근절, 폭염·질식사고 예방 등 중점 추진과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 실천 속도감 높이기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30일(화) 14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분기 산재 사망 사고자 수가 역대 최저라는 유의미한 변화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특히 최근 붕괴, 화재·폭발 등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회의 참석자들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동일·반복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최근 제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끼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동일·반복 재해 기업에 대한 감독·점검 등 밀착 관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스마트 안전장비 등을 통해 현장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처협업형 스마트 공장(산업안전분야)을 구축토록 지원하면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린다”는 인식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중기부, 산업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간다.

또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건설·항공업, 물류·유통업, 농·축산업, 조선업 및 임·어업 등 야외활동이 잦은 업종에 대해 국토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등과 협력하여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폭염단계별 작업중지”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지도한다.

* ① 시원한 물, ② 냉방장치, ③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 보냉장구 지급, ⑤ 119신고

기온상승에 따라 맨홀, 축사, 지하 공동구, 선박 내부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가 우려되므로, 지방정부 지역 곳곳의 현장작업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 등 안전한 상태 확인 후 작업할 수 있도록 행안부, 농식품부,

기후부 등과 관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도 행안부의 중앙-지방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적으로 여름철 폭염 대비 야외노동자 안전관리, 무더위 쉼터 운영·점검 및 질식사고 예방조치 준수를 당부하는 등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에 걸맞도록 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라며, 특히 “동일·반복되는 재해는 반드시 끊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산업재해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현장의 노력이 지속가능한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오은경 (044-202-8804)
		담당자	서기관	김정탁 (044-202-8811)
			주무관	오진아 (044-202-8916)
담당 부서	산업보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현욱 (044-202-8870)
		담당자	사무관	유의찬 (044-202-8869)
담당 부서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담당자	서기관	김은화 (044-202-8903)

□ 일시 및 장소

- (일시) '26. 6. 30.(화) 14:00 ~ 15:30
- (장소) 서울정부청사 무궁화홀(2실)

□ 참석자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등
- (유관부처)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차관(급)

□ 논의 주제

※ 대통령님 말씀('26.6.23, 국무회의)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똑같은 회사의 사업장에서 재반복된다는건 용납하기 어려움. 반드시 재발을 방지할 것”

- ① 「노동안전 종합대책」 부처별 과제 이행 현황
- ② 동일 반복재해 근절 등 안전한 일터를 위한 하반기 중점과제

□ 세부 일정

* 인사말씀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인사 말씀	장관
14:05~14:45	40'	· 부처별 이행 상황 보고	참석자
14:45~15:25	40'	· 안전한일터 실천방안 논의	참석자
15:25~15:30	5'	· 마무리 말씀	장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작년 9월, 정부는 산업재해의 구조적·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부처 노동안전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723억원으로 편성하여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기술·인력·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여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의 노력과

대통령님의 강력한 산재근절 의지로 인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사고는 역대 최저(113명, 24명 감소)라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대전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화재(3.20),

서소문 고가차로 철거현장 붕괴(5.26), 무기제조 사업장 폭발(6.1) 등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다시 한 번 산업전반의 안전에 대해 되짚어 보고,

‘안전한 일터’를 이뤄내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동일·반복되는 재해를 반드시 끊어내기 위해
산업현장을 밀착하여 관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은 문제”라고
또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사망사고가 집중 반복발생한 신안산선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황을 면밀하게 감독하고
포스코그룹 계열사 대표들과 점검회의를 개최(6.15)하여
현장중심의 실질적 안전 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경영방침 쇄신과
실효성있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 적극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① 위험현장에 대한 본사의 안전투자 확대 ② 현장 안전보건관리자 확충 및 처우 개선
③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

각 부처에서도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및 공공분야 등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을 밀착 관리하여 주시고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장 정보공유나 시스템 개편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폭염에 의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점검과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제가 어제 대전 지역 신축공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느꼈지만
건설업이나 물류·유통업, 조선업, 임업, 농축산업 등
옥외 작업이 많은 경우 혹서기 작업이 힘든 만큼
사고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폭염작업시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단계별 조치사항을 준수토록
전파하여 사전에 온열질환을 예방토록 철저히 관리해주시요.

셋째, 기온이 상승하면서, 질식재해 위험도도 상승합니다.
각 부처는 맨홀작업, 측사, 지하 공동구, 선박 내부 등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를 통해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공공부처 산업안전을 위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발주 공사나 용역 사업 수행시
적격업체 선정, 안전보건준칙 이행 등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요.

국민의 생명과 목숨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로서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책임 있는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회의는 종합대책에 포함된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더 나아가서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노동부는 “안전 앞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의지하에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향후 충실히 반영하고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입법과제도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안전한 일터를 위한 소임을 다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